

양돈 공동방역사업단을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돼지 생산성을 크게 영향을 주는 시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유럽의 돼지 콜레라, 대만의 구제역, 미국의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한국의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돼지 질병의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질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양돈 공동방역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돈 공동방역사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민간단체, 정부, 연구소 등의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양돈 공동방역사업단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사양가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업단이 구성되어져야 한다. 자칫 사업단이 전문가들의 회의로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언론의 창구로 변질되어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농장을 위한 방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공동방역사업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양가의 협조와 전문가의 자문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방역의 혜택을 받는 사양가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자발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사양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역사업단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역 사업단 구성원들은 나름대로의 현장을 이해하고 경험을 축적해서 서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사양가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해줘서도 안될 것이다.

방역상 절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양가의 편의대로 양보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업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가끔 사업단 구성원들이 현장감이 없거나 실행 불가능한 조언이라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거나 무시



채 찬 희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조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사양가도 설득시키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만 된다.

사업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질병 방역 대책보다는 전체적인 질병 흐름을 파악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오제스키병,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설사등 특정 몇몇 질병에 대해서만 중시하다 보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다른 질병(예를 들면,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해서는 방역이 소홀해 지게 된다.

공동 방역단은 반드시 전체적인 질병의 흐름을 파악하여 질병 발생 시기를 예견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진단이다. 진단이 없이 방역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은 정확하고 신속해야 되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진단없이 효과적인 방역사업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지구 또는 지역별로 이러한 진단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간접적으로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질병의 연구 없이는 효과적인 방역대책은 수립할 수 없다. 끝으로 양돈 공동 방역 사업단은 현재의 업적은 매우 옳게 평가할 수 있으며 방역에 대한 주역일 뿐만 아니라 사양가, 학교, 연구소, 정부를 조율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면 우리나라의 방역이 점진적으로 예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養豚**

●

공동 방역단은 반드시 전체적인 질병의 흐름을 파악하여 질병 발생 시기를 예견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진단이다. 진단이 없이 방역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은 정확하고 신속해야 되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